

# 공간표현과 감정특성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막스 뤼셔의 심리치유이론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Expression & Emotional Character

- based on the psychological healing theory of Marks Lüscher -

김 광 호\*

Kim, Kwang-H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omplementary idea of the psychological elements in aesthetic expression of architectural space in the sense of healing. Marks Lüscher, the swiss psychologist suggested reasonable categories of emotional character according to the couple combinations among Content, Self-Esteem, Confidence, and Liberty. His theory on healing is not only the concept but the practical method to understand and control the conflict between contrary elements of emotion. Compared to the Freud's objective theory of cause and consequence, his idea is focused on the subjective and autonomous harmony. This theory based on complementary idea is applied to psychological attitude of architects on Spatial Expression in this study. Refuge, Prospect, Flow and Void are assumed as equivalent spatial elements to the four major emotional conditions suggested by M.Lüscher. The couple combinations among them also characterize the architectural characters definitely and it is expected to be the reasonable criteria in analysing aesthetic value and motive of creating human space.

키워드 : 치유적 공간이론, 만족-피난처성, 자존-조망성, 자신-흐름, 내면적 자유-허공

Keywords : Space Theory for Healing, Content-Refuge, Self Esteem-Prospect, Confidence-Flow, Liberty-Void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막스 뤼셔(Marks Lüscher, 1923-, 스위스)는 철학적 기초에서 발전된 심리학의 이론가 및 임상실험가로서 일반인도 이해하기 용이한 설명으로 깊이 있는 심리학을 다루고 있는 저명한 학자이다. 심리치유의 목적과 방법이 복잡하면서도 명쾌한 그의 이론은 건축의 심리적 분석방면에서도 적용해 치유건축연구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적절한 도움이 되는 기초이론이라고 생각된다.

각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근·현대 거장건축가의 디자인 이론연구 방면과 실질적이라는 선입견을 주는 치유건축 개념간의 접목은 시도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각 건축가의 성향은 미학적인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만 주로 비평되어 추상적 차원과 실질적 측면의 가치가 서로 관련 없는 국면에서 분리 평가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웰빙(well-being) 또는 생태적 환경주의의 새로운 물결은 인간의 본성적 건강성 회복의 차원에서 미학적 이슈를 다시 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현대 건축의 디자인이론과 연관된 치유건축연구의 일환으로서 작가의 감정특성에 따른 공간표현심리의 고찰이 필요한 것이며 이로서 치유적 공간이론(Space Theory for Healing)의 개발로 물리적인 분야뿐만이 아닌 정신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의 기틀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1.2. 연구방법과 범위

뤼셔의 심리치유 이론은 마음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또한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네 가지 심리구성요소의 제시에서 시작된다. 이는 '만족', '자신', '자존' 그리고 '내면적 자유'로서 이들 간의 상호보완성이 심리적 건강의 필수요건이고 인간의 심리적 성향 및 문제점 분석의 근간이 되는 기준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네 가지 심리적 구성요소가 건축의 공간표현 요건 중 어떠한 요소들

\* 정회원,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이 연구는 2004년도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됨. 과제번호 : 31458

과 논리적 연관성을 갖게 되는지 먼저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뤼셔에 의하면 개개인의 인격적 성향은 이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 가치에 주로 치우친 면을 보인다. 즉 여섯 가지 조합의 결과인 성향들로 설명되는 그의 인격 유형 도식은 인간의 근원적 심리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함에 유용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건축적 측면으로 연관시켜 공간표현의 네 가지 요소 중 두개의 조합으로 발생하는 여섯 가지 유형의 태도와 성향을 통해 건축 창작의 심리적 문제를 분석하고 다른 유형간의 치유적 상호보완과 조절의 개념 확립을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

## 2. 뤼셔의 심리지유이론

### 2.1. 뤼셔 심리학의 자율적 조화성

뤼셔의 심리학 이론은 철학적 질문의 근원이 되는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주축으로 한다. 그는 알베르 카뮈의 ‘시지프스의 신화’중 한 문구를 인용하여 이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그 내용은 요약하면 인간이 목숨을 포기할 정도의 상황은 자기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와 또 역설적인 경우로서 삶에 의미를 주는 이념이나 환상을 추구하는 경우라는 것이다. 그는 이 근원적 물음에 대한 답을 단정적인 정의로서 내리지 않고 정신적 확신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이론 활용의 제시를 통해 다양한 조합가능성이 있는 매트릭스적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만족’, ‘자신’, ‘자존’ 그리고 ‘내면적 자유’의 정상과 비정상 감정상태의 상호 연관적 분석을 통한 마음조절의 방향 모색이란 방법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인간의 행동에서 이 네 가지 상태 중 두 가지에 주로 치우쳐 나타남으로서 만드는 여섯 가지 인격유형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균형을 잃으면서 또한 찾아가는 양 측면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을 충동메커니즘과 방어메커니즘 사이에서 자기의 쾌락원칙을 만족시키려고 할 뿐인 한 ‘객체’에 불과한 것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결정론적 메커니즘으로서 구상된 자연과학적 심리학으로서 자율적 ‘주체’를 간과한 것으로 뤼셔이론에서 주로 다루는 ‘의미’를 지침으로 하는 양심과 동기에 의한 조화의 추구가 결여된 것이다. 즉 냉소적이고 기계적인 차원에서의 원인과 결과의 연결로 인해

비인간화된 근대 심리학의 단편적 메카니즘으로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인간이란 정신적 생명의 존재가 추구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선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건축공간이론에서도 인간의 주체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자율적 측면이 강조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뤼셔의 이론을 활용하여 보다 상세한 심리의 측면에서 다양한 조합의 유형을 연구하여 건축공간이론에 접목시킴으로서 자율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포착하여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인간적 건축공간구성의 이론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 2.2. 네 가지 주요 자기감정

뤼셔에 의하면 정상적인 네 가지 감정상태는 ‘만족=1’하고 ‘자존=2’이 있으며 ‘자신=3’이 있고 ‘내면적 자유=4’가 있는 것으로 제시 된다<sup>1)</sup>. 이것 들은 그 조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식되지 않는 것으로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균형의 상태로 수행되며 여기서 한 가지 자기감정이 균형을 잃고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가 되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분열된다. 이를 약호로 표현해 +1은 만족부분의 자기 과대평가로서 자기 방임 또는 자기마취의 욕구 상태로 자제력이 부족해짐을 의미하고 -1은 만족부분의 자기 과소평가로 불만의 상태로 소홀한 취급을 받은 느낌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존대신에 +2는 자기강제(거만함, 우월감, 권력욕, 위선), -2는 자기해방 (좁은 곳에서의 공포감, 위선과 인정을 얻기 위해 방해물로부터 해방되려는 지나친 욕구), 자신대신에 +3은 자기승배(파시옥, 도전성, 공격성), -3은 자기 연민(과로, 부담감, 자신감 약화, 쉽게 흥분함), 내면적 자유대신에 +4는 자기도피(환상적 기대로의 도피), -4는 자기불안(상실의 공포, 소심, 걱정)등 여덟 가지 잘못된 자기중심적 자기감정으로 분류된다.

뤼셔의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의 4분의 3이상이 한 가지 부정적 감정에 고착되어 있고 이중 두 가지 이상의 부정적 감정이 있을 경우는 심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오해, 충돌 및 고통을 쉽게 유발하므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된다. 뤼셔는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직관력<sup>2)</sup> 있는 조화의 세계 속에서 정상적 네 가지의

1) 뤼셔는 이러한 네 가지 자기감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테스트색이 주는 느낌과 각각 일치한다고 하고 있다;

“어둡고 깊은 청색은 만족에 상당하고, 푸른빛이 도는 녹색은 자존에 상당하며, 주황빛의 강렬한 적색은 자신에 상당한다. 그리고 아주 밝은 황색은 내면의 자유에 상당 한다.”

(뤼셔/김지혜 역, 2003:93)

2) 뤼셔는 이 직관을 개념을 갖고 생각하는 ‘이론적 직관’,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실행적 직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정상태를 회복하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2.3. 뤼셔이론과 공간표현성향간의 관계

자기감정은 몸의 상태, 외모, 행동, 운명 그리고 개인적 생활양식을 이루는 모든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각 건축가의 디자인 성향 또한 이러한 감정상태에 따른 태도에 의해 변화되고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외적인 영향요소로서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측면들뿐만 아니라 디자인성향들을 해석할 경우는 그 영향요소들을 지나치게 객관화시킨 범주로 보게 되어 '객체'들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결정론적 메카니즘에 의존하는 한계가 생긴다고 본다. 즉 원인과 결과의 고정되고 단편적인 연관성에만 치우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내적인 심리요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상황 선택의 '주체'가 되는 개인의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자율적인 측면에서의 관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것이다.

각 건축가들의 공간적 표현 차원에서의 해석은 형태적 표현 차원에서보다 주관적 감정과 의지의 상태와 연관지어 이론적으로 체계화 시키는 데 유용하다고 본다. 뤼셔 이론은 이런 측면에서 건축공간표현의 결과물과 감정상태의 연관성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도구가 된다고 본다. 그가 제시한 네 가지 주요 감정상태와 여섯 가지 행동 유형을 공간표현의 네 가지 요소와 근·현대 건축가들의 여섯 가지 유형과 연관지어 각각 고찰해 보도록 한다.

## 3. 뤼셔의 심리요소와 공간표현요소의 연계

심리적 감정표현의 주요 요소로 제시된 뤼셔의 만족, 자존, 자신 그리고 내면적 자유에 각기 해당하는 공간표현의 요소는 피난처성(refuge), 조망성(prospect), 흐름(flow) 그리고 허공(void)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구성개념과 달리 '공간표현'이란 개념은 물리적 객체로서 보다 주체로서의 건축가의 창작의 의미를 강조하여 심리적 요인과의 연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적합한 것이다.

### 3.1. 만족-피난처성 (Content-Refuge)

뤼셔가 말한 '만족'의 감정상태는 '논리적인 의미이해'의 상태를 말한다. 왜냐하면 만족과 평온의 감정은 자연적 이치에 해당하는 문제의 해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깊이 느끼며 생각하는 '심리적 직관' 그리고 자유롭게 상상할 줄 알고 이를 미술이나 음악을 통해 표현하는 '예술적 직관'으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뤼셔/김지혜 역, 2003:205)

정신적으로 사물을 건전한 상식으로 있는 그대로 보며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점수매기지 않을 때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신체적으로 각 생체시스템의 요구에 충족할 때 그러하다.

'피난처성'이란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적 안전함과 기능적인 조건들이 충족될 때의 공간적 보호의 감각을 말한다. 둘러싸인 아늑하고 안전한 느낌으로만 이 개념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피난처적 감정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의 공간적 인지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안전과 기능성에 대한 기본적 문제의 이해가 선행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는 윤리적이거나 미학적인 이해에서 출발하는 개념은 아니나 건축공간탐색의 심리적인 기지(base)역할을 하여 다음에 언급할 '흐름'의 공간표현에 있어서 출발과 도착의 지점이 된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피난처성은 신체접촉범위에 속하는 주변공간에서 시야범위 - 상하 60도 및 좌우 120도 - 에서 벗어나는 부분의 보호적 조건으로서 시각적 형식성이 적용되지 않는 촉감적 내용성을 그 중요한 공간표현성 해석기준으로 삼는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주의 공간에서 수용되는 직감적 감정상태를 말하는 피난처성은 '평온'의 상태를 목표로 하는 '만족'의 개념이 적용되는 공간표현의 기본요소인 것이다.

만족의 부정적 상태인 자기방임과 불만을 피하기 위해 선 현실의 문제를 과소 또는 과대평가하지 않는 논리적 이해상태가 중요하다고 뤼셔는 말하고 있다.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 인식이 적당하고 그에 대한 대처가 적절함은 곧 심리적 만족상태를 만드는 핵심적 태도이고 이는 건축공간의 기본적 문제인 안전과 기능성에 대한 적절한 해결에서 발생하는 '피난처성'의 평온한 감정상태를 위한 공간계획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중요한 것이다.

감각적 면에서 피난처성은 온도, 습도, 채광, 기류 등의 환경적 조건이 '이해'된다고 하기보다는 '충족'이 될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심리적 공간표현문제의 범위를 벗어난다.

### 3.2. 자존-조망성 (Self Esteem-Prospect)

뤼셔에 의하면 '자존'은 '윤리적의미가 충족'된 감정상태를 말한다. 물리적 조건이 근접한 상태에서 유발되는 만족의 실질적 개념과 달리 자존은 시공간적으로 상당한 차이와 거리를 둔 추상적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다. 자연의 객관적 이치보다 인간의 주관적 이치에 관여되는 자존의 감정상태는 윤리적 가치의 민감한 기준에 의해 적절한 명예와 보람의 긍정적 상태와 자기강제 및 자기해방의 부정적 상태로 나뉘는 것이다.

‘조망성’은 인간의 신체적 접촉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시야의 확보로서 신체의 다섯 가지 감각이 모두 적용되는 여기(her)의 공간이 아니고 시각각(vision) 만이 적용되는 저기(there)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조망성 개념은 내용적 실질성보다 형식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형태적 통일성과 다양성에 의한 질서감과 변화감등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공간적 입장에서의 윤리적인 측면으로서 시공간적으로 가까이 근접한 환경에서의 실질적 신체감각 시스템차원의 피난처성 개념과 대비되는 것으로 시각을 통해 내면화되는 이미지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조망성에서는 안정적인 감정상태를 추구하기 보다는 적절한 흥분을 유발하는 다양성과 그 변화성을 질서 있게 조절하여 주는 통일성의 조화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 중시된다. 즉 조망성은 자아의 존립에 관한 ‘자존’이란 형식 측면과 같은 감정적 가치를 충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축공간에서 시선은 피난처적 공간에서 출발하여 내부(interior)조망을 거쳐 외부(exterior)조망으로 흐르고 이는 최종적으로 내면적(internal) 조망으로 변환되어 기억된다. 이러한 조망성의 내·외부 요소들 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편에 치우친 공간체험이 될 경우는 마치 자존의 적절한 충족상태를 벗어나 자기해방과 자기강제의 부정적 감정상태로 편향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3.3. 자신-흐름 (Confidence-Flow)

‘자신’은 ‘실행적 의미의 충족’이라고 뒤서는 말하고 있다. 이는 신체와 정신에너지의 능동적 발현으로서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여기’의 공간에 해당된다는 측면에서는 ‘만족’의 감정상태와 같은 맥락에 있다. 자신의 감정상태가 갖는 실행적 속성으로 인해 이는 시스템과 이미지보다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많은 연관이 된다. ‘만족’과 직결된 신체감각과 근접한 공간의 조건에서는 생체시스템의 고려가 중요하고 자존과 같은 신체감각과 거리가 먼 조건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자신’은 두 가지 감정상태의 중간적 조건으로서 신체감각시스템을 역동적 체험으로 변화시키며 목표하는 이미지 상태로 도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이란 이러한 목적 있는 감정상태의 진행과정이 합리적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신체감각보다 두뇌의 이성적 기능에 더욱 관련된 것이다.

‘흐름’이란 공간표현 개념은 목표지점의 도달을 위한 공간적 에너지의 발현과 관련되는 것이기에 ‘자신’의 감정상태가 갖는 능동적 역동성과 같은 맥락에 있다. 공간의 ‘흐름’이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시스템적 프로그램과

이미지적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전자는 신체의 능동적 이동인 동선의 흐름(circulation)이고 후자는 이미지의 수동적 이동인 시선의 흐름(visual sequence)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흐름의 경로는 서로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리듬 있게 반복하며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때에 깊이 있는 공간체험을 가능케 한다. 신체와 시선 중 하나에 치우친 상태에서의 공간체험의 강도는 매우 미약한 것이며 이는 ‘자신’의 적절한 감정상태를 벗어난 자기 숭배와 자기연민의 부정적 편향상태와 같은 것이다.

### 3.4. 내면적 자유-허공 (Liberty-Void)

‘내면적 자유’는 뒤서의 말에 의하면 ‘미학적 의미의 충족’에서 오는 감정상태인 것이다. 이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차원을 초월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는 ‘자존’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으나 인간정신의 영원성과 결부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내면적 자유’는 인간의 심리적 성숙과정에 있어서 마슬로우가 말한 최종의 궁극적 욕구인 자아실현의 개념과 같은 단계인 것이다. 매우 비일상적 감정상태임으로 인해 삶에서 가장 적은 체험의 몫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나 가장 높은 단계이고 가장 추상적인 감정상태이다.

‘허공’은 ‘실공(solid space)’의 일상성과 기능적 고정성에 대비되는 비일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기능을 갖는다. 이는 고형물(solid)의 삭제(cutting)나 상대적 공간이용밀도의 낮음 등을 통해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신적 삶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표현의 요소인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행해지는 의사소통과 감정소통의 대상은 세 가지로 생각하여 타인, 자연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볼 수 있다. 타인과의 일상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타인과의 감성적 소통, 자연과의 무언의 대화 그리고 자아의 깊은 성찰 등은 ‘만족’, ‘자신’ 그리고 ‘자존’의 감정상태에서 찾을 수 없는 ‘내면적 자유’의 의미와 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내적 법칙이 적용되는 미학적 차원의 것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적 자유의 체험은 고정된 일상적 프로그램성을 배제한 ‘허공’의 불확정적 비 일상성과 여유감을 통해 가능하다. 여기서 ‘실공’과 ‘허공’이 만나는 상호간의 경계(interface)공간은 인간이 실제 발을 딛고 머물 수 없는 허공이란 존재에 가장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 가장 다양한 공간이미지 체험을 지원한다. 감정적 압박의 상태를 견디고 나서 얻는 상대적 해방감, 즉 내면적 자유의 감정상태는 실공에서의 긴장과 압축상태에서

벗어난 허공의 이완과 팽창상태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종종 체험 가능한 것으로 경계적 장소가 지원하는 중요한 미학적 의미인 것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자연 공간, 즉 외부 공간은 허공이고 내부 공간은 실공일 것이나 현대건축의 공간미학은 내부에서도 외부와 같은 체험이 가능한 요소들을 개발하는 데에 상당한 주안점을 두며 내부에 다양한 형태의 허공을 도입하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 4. 현대건축 창작성향의 뒤서이론적 분석

##### - 여섯 가지 인격유형과 공간표현

뒤서에 의하면 개개인의 인격적 성향은 전술한 네 가지 감정상태의 요소 중에서 두 가지의 가치추구에 주로 치우치고 그 결과로서 여섯 가지 조합의 대표적 성향들로 분류된 유형이 발생한다. 이는 건축가들의 창작행위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설계의도의 심리적 원인 분석기준을 제공하여 형태적 결과의 이미지나 사회적 프로그램의 차원에서만 주로 다루어진 공간이론의 범주를 보다 넓힐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의 여섯 가지 생활양식의 감정상태와 연계된 공간표현요소 조합에 의한 유형들은 뒤서의 이론을 현대건축 대다수 거장들의 창작태도분석에 적용한 내용으로 건축가들에 있어서 창작의도(intention)의 심층적 측면 이해를 위해 유용한 도구로 제시하는 것이다.

##### 4.1. 자신-자존 (흐름-조망성) 추구 유형

이는 권력 지향적 생활양식으로서 자신감과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사회적 힘을 키우고 과시하는데 관심을 갖고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 책임과 정의가 있을 경우 이러한 태도는 정당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권력남용이 된다.

공간표현에 있어 '흐름'과 '조망성'은 모두 외향적인 조건의 상태이다. 여기서는 양(+)적이고 음(-)적인 요소간의 조화에서 오는 균형 감각이 결여되어 있어 수동적 행태와 심리상태를 수용하는 공간적 지원성이 약하고 능동적 행태를 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자존에 해당하는 공간적 우세의 위치성과 자신에 해당하는 공간적 힘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매우 활동적이며 외양적인 형식성을 갖고 수용적이지 않은 지시적 성향을 보인다. 권력은 두 가지 방향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보수적으로 기존질서를 유지하는 힘으로 사용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영토 및 분야, 적용방식의 혁신 등으로 향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표현의 방식에 있어서도 이 유형은 가장 진보적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동시에 그 개혁적 상태를 보수적이고 배타적으로 지키는 면 또한 상존하는 것이다.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 1886-1969)의 작품은 근대건축공간의 융통성과 유동성을 결합하여 '조망성'과 '흐름'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서 벽체, 지붕 및 바닥은 서로 미끄러지는 형태로 명쾌한 분절의 구성을 이루는 시각적 오브제로서 우수한 조망성을 형성하고 유동적 시선과 동선의 흐름과 조화되어 다양한 연속경관(visual sequence)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피난처성'에 해당되는 보호적 감각과 '허공'에 해당하는 공간표현은 상당히 결여 되어 있는 것이다.

버나드 츠미(Bernard Tschumi, 1944-)는 미스 반 데 로에의 원칙적 근대주의사상을 전면적으로 해체하여 형태적 결과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거나 조망성과 흐름에 중점을 두고 수동적 요소를 크게 배제 시킨 면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미스 반 데 로에의 안정적이며 결정적인(determinate) 프로그램이 버나드 츠미에게 와서는 불안정의 가치를 수용하는 비결정적(indeterminate)인 프로그램인 '이벤트(event)'로 바뀐 것일 뿐 외양적 가치와 힘에 의한 권력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에 의한 두 건축가 모두의 자존과 자신중심의 감정상태는 조망성과 흐름을 결합한 연속경관을 주제로 한 역동적인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유리 비디오 갤러리에서의 불안정한 경사판에 의한 흐름위주 내부공간과 전면유리에 의한 외부조망의 결합은 그의 이러한 성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1.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미스 반 데 로에



그림 2. 유리 비디오 갤러리  
버나드 츠미 (사진출처 :  
<http://www.tschumi.com>, 2005)

##### 4.2. 만족-내면적 자유 (피난처성-허공) 추구 유형

이는 애정이 필요한 사람의 생활양식으로서 어린시절에 애정 결핍 또는 과잉보호로 자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두 가지 요소 모두 수동적인 감정상태로서 도피의 방식으로 생활양식을 규정짓게 하나 그 도피의 방식중 하나는 아름다운 대상이나 음악, 문학 및 여행 등에 몰입하는 감성적 탐미이고 다른 것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해매는

것과 약자를 위한 무조건적 헌신이다. ‘만족’과 ‘내면적 자유’의 감정상태를 지원하는 공간표현의 요소는 ‘피난처성’과 ‘허공’으로서 이는 각각 공간적 여정의 근원적 출발점과 무한대의 목표지점이 되는 것이다. 지시적 성향이 모두 배제되고 수용적 성향만의 결합인 이 양식은 지배와 권위의 정치적 요소가 없는 무정부적 자유와 헌신 그리고 예술지상주의를 이념으로 한다.

루이스 칸(Louis Kahn, 1901-1974)은 이러한 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순수예술정신을 지향한 건축가이다. 그의 작품은 항상 거주자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방(room) 개념의 ‘피난처성’ 단위와 프로그램 없는 여유 공간 개념으로 빛과의 만남을 주제로 하는 ‘허공’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심오한 애정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예일대학교 영국미술관의 입구 홀의 매우 밝고 안정된 분위기의 허공은 외부 전정공간의 낮고 어두운 펠로티 부분 및 실내 각층 전시공간과 긴장-이완의 리듬으로 연계되어 상대적으로 큰 해방감을 지원한다. 루이스 칸은 건축의 요구(need)와 바램(desire)을 구분하였고 바램이 요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요구는 기본적인 시스템과 프로그램상의 필요조건이고 바램은 세상의 영적(spiritual) 풍요로움에 기여하는 이미지인 것이다. 이는 공간에 있어서는 실공과 허공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루이스 칸은 이들 간의 극적 대비를 통해 삶에서의 내면적 자유를 향한 정신적 고양(高揚)의 필요성을 그의 작품을 통해 항상 피력한 것이다.

존 로벨(John Lobell)은 ‘침묵과 빛 사이(between silence and light)’란 저서에서 루이스 칸의 바램이 추구하는 영적 풍요로움은 침묵과 빛 사이를 연결 해주는 통로에 나 있는 개구부를 통해 시작된다고 하고 이러한 통로를 통해 ‘헤아릴 수 없는 것’은 ‘헤아릴 수 있는 것’으로 움직여 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여기서 건물이 그 통로위에 서 있고 그 통로를 개방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향해 되돌아 갈 수 있다고 한다. 루이스 칸은 하나의 위대한 건물이란 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고 느꼈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의 모든 현실적인 것들이 원래의 ‘깨달음’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로 상의되고 존중될 때 하나의 위대한 건물이 탄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침묵의 개념은 가장 피난처적인 존재의 의미를 갖는 반면 빛은 그 존재가 영원성과 연계되고자 하는 허공의 표현적 의미를 갖는다. 전자는 가장 수동적이며 정적(static)인 만족의 감정상태에 그리고 후자는 가장 정신적인 지속성을 추구하는 내면적인 자유의 감정상태에 해당하는 것

으로 루이스 칸은 이들 간의 만남과 대화의 장으로서의 공간개념을 가장 존중한 것이다.



그림 3. 예일 대학 영국미술관 로비, 루이스 칸(사진출처: John Lobell / 김경준역, 2000:11)

#### 4.3. 만족-자존 (피난처성-조망성) 추구 유형

이는 엘리트형 인간의 생활양식으로 타인으로 부터의 인정에 의한 ‘자존’을 ‘만족’ 속에 살기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이다. 타협 없이 자기의 확신대로 자존을 지켜나갈 때만 만족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생활하는 엘리트형의 인간에게 ‘진정한 질(quality)’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들은 유행에 따르는 일상적 취미에서가 아닌 섬세한 문화의 수준 높은 업적이 있는 것을 찾고 만족을 하며 자신의 범주에 안주하여 열린 마음과 호기심의 관찰을 통해 어떤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인다. 수동적 만족상태를 추구하나 능동적인 자존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결합되어 도피적인 인상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만족과 자존의 감정상태를 지원하는 공간표현의 요소는 ‘피난처성’과 ‘조망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간의 심리적 압축과 팽창상태에 각각 해당되는 것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대비적 공간 에너지를 표현 한다.피난처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어두우며 가라앉은 공간적 감성은 조망성의 두드러지고 밝으면서 고조된 감성적 특성과 함께 대비되어 예술적 섬세함의 높은 완성도가 추구되는 것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1867-1957)는 이러한 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가로 어느 누구보다 대조적 요소간의 대비를 통한 공간의 역동적인 표현을 중요시하여 강조하였다. 그의 작품에선 피난처로서 매우 압축된 스케일 속에서 손이 닿는 범위 내에 편리한 기능성을 만족시키는 개인적 공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팽창되고 개방된 조망성을 확보하는 공적 공간과 연계되어 상호보완적 구도를 유지한다. 유기적 자연주의의 인간과 자연을 일체로 생각하는 일원론(monism)적 사상은 그의 공간

철학의 근간으로 피난처성 개념을 공통적으로 중시한 루이스 칸이 인간의 내면적 존재 측면에 집중하여 허공을 강조한 것과 달리 내·외부 경관으로서의 조망성 개념을 강조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의 대다수는 넓은 초원 위에 지어진 것으로 대자연으로부터의 피난처로서의 존재와 역으로 대자연을 향한 조망을 확보하는 장소로서의 존재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 이는 수동적 만족과 능동적 자존의 감정상태가 공존하는 역설적인 상황과 같은 것으로서 은둔해 있어 자신의 범주에 머물고 있으나 높은 자존의식을 통해 만족을 유지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각적 요소이외의 촉각과 청각을 고려한 디테일 측면에서의 섬세한 처리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상적 만족의 감정상태를 매우 중시했다는 증거이다. 낙수장(Falling Water)을 예를 들어 볼 때 거실에서 불과 물의 요소인 벽난로와 하부 개울에 계절적 조건에 따라 쉽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처리가 된 점은 촉각적인 환경 체험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침실에서 조망은 제공되지 않으나 개울 방향으로 향한 작은 창을 통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누워서도 들을 수 있게 배려함은 보다 확장된 청각적인 환경 체험을 가능케 하는 배려인 것이다(그림 4).

이러한 내부적 피난처 속에서의 다양한 만족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의 작품은 외부로 향한 조망성의 강도 또한 증폭시키고 있다. 낙수장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구석창(corner window)에서 유리와 유리를 프레임 없이 직접 만나게 하는 버트 조인트(butt joint)처리를 통해 작은 공간에서부터 외부를 보다 넓은 수평시야각도로 연속 조망할 수 있게 한 것이 그 예이다. 피난처 공간의 불변적이고 고정적인 특성 속에서 주체로서의 인간 중심성을 강조하면서도 가변적인 외부조망을 적극적으로 취함으로써 그의 공간은 상호보완적 균형감을 추구하고 있다.

Plan of Fallingwater, second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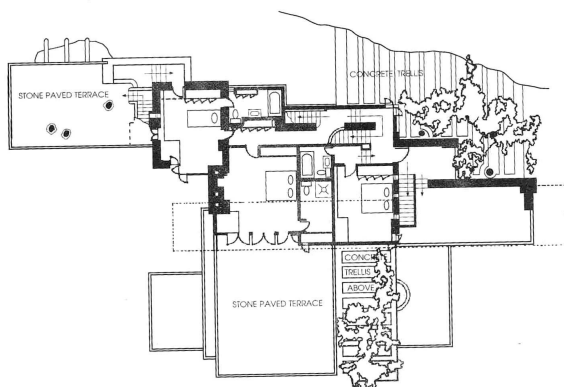


그림 4. 낙수장 2층 평면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 맨 우측 부인침실에서의 작은 창문이 조망보다 시냇물소리를 유입하고 있음(도면출처 : Storrer,1993:238)

#### 4.4. 자신-내면적 자유 (흐름-허공) 추구 유형

이 양식은 대중적인 사람의 것으로 활동적 사회생활을 통해 남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잘 알려지는 것에 매우 흡족 하는 경우이다. 엘리트형 인간처럼 특별한 분야의 박식함보다는 대중적인 의견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갈채를 받는 것에 관심을 두고 내용적 충실도 보다 대중적 호응을 위한 연설을 준비하는 성향을 가진다. 분주하게 보이는 생활방식의 이면에는 거부당함과 외톨이가 되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의 동기가 숨겨져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단히 높게 평가해 줘야한다고는 기대하지 않으며 다양한 대중의 취향과 상황적 변화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키는 융통성이 강하다.

이러한 자신과 자유의 감정상태는 ‘흐름’과 ‘허공’을 통한 공간에너지의 다변적 표현과 연관되어 진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가장 공적(public)으로 접근성이 높은 요소들로서 대중들과 감정이 소통되는 요소들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엘리트형 양식이 개인적 주체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양식은 그와 가장 대비가 되는 것으로 공적인 객체의 관점을 중시하는 것이다.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1887-1965)는 건축작품 뿐만이 아닌 연설, 저술 및 미술활동 등을 통해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한 예로 이 양식을 대표할 수 있다. 그의 건축적 사고는 건축물로 구현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되고 많은 대중의 호응 또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의 공간 표현에 있어서는 객체적이고 구성(composition)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공적공간에서의 연속경관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속경관은 ‘흐름’과 ‘허공’의 요소가 마치 동사와 명사의 언어적 요소간 결합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흐름’은 미스 반 데 로에의 경우처럼 근대건축의 융통성 있고 보편적인 대중을 위한 성격을 추구하나 르 꼬르뷔제의 경우 대체로 시각적 틀(frame)을 갖는 허공과 연계시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러한 허공처리는 형식적 구성의 측면에서 루이스 칸과 유사하나 허공 속으로의 자연 빛의 도입에 있어서 르 꼬르뷔제는 솔리드한 허공주변 벽체표면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도록 한 반면 루이스 칸은 허공간 자체에 3차원적으로 빛이 퍼져 내려오도록 한 점이 상당히 대비되는 측면인 것이다. 이점은 르 꼬르뷔제가 추상적인 공간표현성향을 보이는 하나 보다 대중적인 인지(cognition)측면에서 쉽게 부응될 수 있는 명확하며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강조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5. 라 투레트 수도원, 르 꼬르뷔제

#### 4.5. 자존-내면적 자유 (조망성-허공) 추구 유형

이는 추상적이고 비일상적인 감정상태로만 이루어진 저명인의 생활양식으로 자기의 결정력으로 중요한 신념을 행동에 옮겨 시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대중성보다 권력형과 엘리트형에 가까워 그러한 양식과 접해지는 성향을 보이고 우월하고자 하는 ‘자존’의 의욕과 비일상적이고 초월적인 ‘내면적 자유’를 향한 의지가 결합되어 그 사회를 이끄는 생각과 행동을 보인다.

‘조망성’과 ‘허공’은 ‘여기’의 현실성이 배제된 ‘저기’의 추상적이고 비일상적인 요소간의 만남으로 이러한 자존과 자유의 감정상태를 지원하는 공간표현요소이다. 대중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는 어려운 난해한 표현성을 갖고 개인적인 공간의 디테일한 처리에도 관심이 적으나 시대적 건축 이념을 이끌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이 요소들간의 만남으로 가능한 특징이다. 현실성, 대중성 그리고 개인성이 배제된 특성으로 인해 이 양식은 그 공간표현성의 감정적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매우 허구적인 모호함을 갖는다. 이는 주로 매스컴을 통한 건축가의 사진과 글을 통한 광고적 효과를 통해 그 사회와 시대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 사람에게의 실질적인 이해와 정서적 교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1932-)은 건축공간을 현실공간의 유기적 특성으로부터 독립시켜 사고(thinking)안의 언어적 텍스트의 조합성을 갖는 자율적 요소들로 분해하고 재결합하는 추상적 실험을 보인다. 그는 자신의 저술과 작품에서 건축가의 역할은 건축을 재창조하여 공공기관과 문화적 신념들을 정당화하는 대신에 건축이 이것들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하며 직감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체험의 범주를 간과하는 대신 다소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 관찰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공간표현의 범위인 피난처성의 개념이 그의 작품에선 상당수 배제되어 있으며 연속적 흐름의 역동적 공간에너지 체험 또한 텍스트적 추상성의 상징적

의미강조 뒤에 약화되어 있는 것이다. 주로 시각적 파편의 요소들만이 그 텍스트적 상징성을 지원하여 명사적인 허공과 형용사적인 조망성이 결합하여 난해한 비일상적 수사학으로 그의 공간성이 표현되고 있다. 허공에 도입되는 자연 빛의 처리에 있어서도 집중시키지 않고 산개하는 형식을 통해 중심성 있고 고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피하여 불확정성(indeterminacy)의 가변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6. 아르노프 디자인 센터  
피터아이젠만(사진출처 :  
Molinari, 1999:221)

#### 4.6. 만족-자신 (피난처성-흐름) 추구 유형

이는 사교적인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서 소박하게 타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에서 만족을 얻고 사회적 자신감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정기적인 만남과 단체여행 등의 반복되는 생활의 틀이 이들에게 큰 가치이고 최신의 유행을 따르기보다 일반적인 취향을 따르는 보편성을 갖는다. 이들은 친절함과 겸손의 매우 정상적으로 보이는 태도를 갖으나 지나친 평범함의 가치 속에 안주하는 한계성 또한 있는 것이다.

‘피난처성’과 ‘흐름’은 ‘여기’의 공간적 성격만을 갖는 현실성이 강조된 요소간의 만남으로서 친근한 거리감이 유지되는 한계에서 조성되는 사교적인 사람의 만족과 자신의 감정상태 유지를 지원한다. ‘저기’공간-조망성과 허공-의 환상이 배제되어 있기에 미학적 차원에서의 심도 있고 특별한 공간적 표현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피난처성의 수동성과 흐름의 능동성이 상호보완 됨으로서 안정적 균형감과 소박한 표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잘 알려지지 않는 대다수 일반 건축가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조망성과 허공의 배제로 인해 건축적 구성에 있어서의 모험적 시도가 약한 반면 일반적으로 입증된 자료에 근거한 계획위주의 공간표현을 통해 대중들의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 5. 결론

뒤셔에 의해 제시된 감정상태에 따른 여섯 가지의 생활양식유형의 연구는 지금까지 고찰 한 바와 같이 매스미디어와 주변에서 접한 대부분 건축의 문화적 표현특성들의 근원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적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적인 요건뿐만이 아닌 내면적 심리의 요건들을 이해함은 그 차이로 인한 갈등요소를 줄이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뒤셔는 인간의 주요 세 가지 관심영역이 일차적으로 '생명의 유지'로서 생리적 욕구 충족이며 그 다음차원에선 '기능수행'으로서 일하기와 평가하기 같은 이윤목적의 관심이고 최종적 차원에서는 '반성'으로서 주의 깊게 체험하고 이해하며 판단하지만 평가하지 않는 목적 없는 관심이라고 하고 있다. 본론에서의 유형별 고찰 내용은 각기 다른 성향의 건축가들이 자기가 처한 고유한 맥락과 상황에 대한 효율적 기능수행의 측면을 평가적으로 다룬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이 네 가지 감정요소 모두에 강한 특성을 보이고 그와 동시에 이들 간의 균형을 완전히 이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초월적 관점인 '반성'의 차원에서 상호간의 보완성(reciprocal complement)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뒤셔는 심리치유의 차원에서 각기 다른 대조적 감정성향들 간에 '리듬'과 '조화' 그리고 '감정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치유의 방법들은 바로 상반적 감정요소들 - 지시적/수용적 및 불변적/가변적 - 간의 상호보완성 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적 차원 모두에서의 균형조절을 목표로 한다.

공간표현이란 시간의 차원과 협력하여 인간이 요구하는 주요관심들-생명유지, 기능수행 및 반성 등-의 다양한 측면을 물체로 지각될 수 있는 에너지의 장(field)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간의 총체적인 요소들인 '시스템'과 '프로그램' 그리고 '이미지'가 균형 있게 상호보완 작용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공간표현은 인간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것이다. 여기서 심리적 치유요소와 결합된 이론의 구축은 '이미지'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내용 또한 아우른 것이기에 미학적 가치와 실행적 가치를 동시에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유형의 각기 다른 감정상태를 가진 건축가들이 자신의 특성을 스스로 이해하는 가운데 내면적 감정의 균형을 조절하고 다른 특성의 작가들과 상호 영역의 비정상적

침해 없이 평화로운 자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이 요구하는 공간의 참다운 기능과 의미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치유적인 건축창작의 감정상태 확보는 치유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맥락과의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위해 건축가들의 다양한 심리에 대한 근원적 이해의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2. 김광호, 생태적 매트릭스 공간, 미건사, 2004.
3. Boesiger, Willy edt. 이관석 역, 르 꼬르뷔지에 작품과 프로젝트, MGH Architecture, 2001.
4. Hildebrand, Grant, Origins of Architectural Pleas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USA, 1999.
5. Hoppen, Donald W., The Seven Ages of Frank Lloyd Wight, Dover Press, USA, 1993.
6. John Lobell, 김경준 역, 침묵과 빛, 시공문화사, 2000.
7. Max Lüscher, 김지혜 역, 우리안의 조화의 법칙, 까치글방, 2003.
8. Michael Benedikt. 계소라역, 현실의 건축을 위하여, 미건사, 2002.
9. Molinari, Luca, North American Architecture Trends, Skira Architecture Library, Milan, Italy, 1999.
10. Robert L.Thayer, Jr. 양병이·장병관 역, Gray World Green Heart, Technology, Nature, and Sustainable Landscape / 지속가능한 경관론, 태림문화사, 2000.
11. Storrer, William Allin, The Frank Lloyd Wright Compan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USA, 1993 .
12. <http://www.tschumi.com>, 2005.5.2.